

# 중소기업 적합업종 연기 “유감”

## 중앙회, 소상공인 애로사항 무시 ... 조속한 지정 강력 요청

동반성장위원회가 12월27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2013년으로 연기하자 중소기업계는 이미 합의·의결된 사안까지 결정을 미룬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12월27일 제과점,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예정했었다.

특히, 꽃 소매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자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LPG(액화석유가스) 소매업·자판기 운영업·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권고안으로 의결까지 했음에도 다른 업종과 함께 적합업종 지정을 연기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동반위 결정은 생활형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무시한 처사”라며 “특히 위원들 사이에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적합업종 선정을 2013년으로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장희 동반위원장도 5월 <2012년 안에 일부라도 적합업종을 반드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7>